

담양군이 오는 24-25일 개최하는 담양산타축제를 위해 담양읍 중앙로 일원 '차 없는 산타거리'를 운영하며 곳곳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산타축제 준비 만전...겨울 마법으로의 초대”

담양군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담양읍 중앙로 일원에서 '겨울 마법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담양 산타축제를 개최한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산타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제 주무대 장소인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운영하는 것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산타거리를 운영함으로써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가의 활성화에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기간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길 입장권을 쿠폰으로 환급해 관광객들이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담양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24일 문화회관, 25일에는 중앙로에 주무대를 마련했다. 축제 첫날인 24일은 중앙로(강동오케의 사거리)에서 화려한 축제 시작을 알리는 거리 행진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개막 행사와 더불어 '산타 타임캡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산타 타임캡슐' 이벤트는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추억의 물건이나 메시지를 산타 주머니 또는 선물 상자에 담아놓으면 주무대로 전달해 밀봉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타임캡슐은 본인 또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다음 산타축제에서 개봉할 수 있다. 또한 축제기간 다양한 야경 포토존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

24-25일 중앙로 일원 '차 없는 산타거리' 운영 산타 타임캡슐 이벤트·야경 포토존 등 다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 공간도 마련해 하루 종일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꾸며질 계획이다.

올해 산타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으로 ▲개막행사(피포먼스, 산타거리 퍼레이드) ▲축하공연(울랄라세션, 흥경민 등 초청가수 공연) ▲소공연(버

스킨, 마술쇼), 체험 이벤트로 ▲소원트리 체험 ▲산타 캠프파이어 ▲나만의 크리스마스 플라마켓 ▲농특산물·공예품 판매, 경관 조명으로 ▲대형 성탄트리 설치 ▲산타거리(야간경관조명)를 선보인다.

연계 행사로는 ▲메타프로방스(야간 경관조명, 플라마켓, 버스킹 공연) ▲담빛예술창고(파이프오르간 연주) ▲해동문화예술촌(톤크 페스티벌과 통기타 공연) 등으로 짜여졌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오는 31일까지 중앙로 일원 시가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겨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산타와의 만남, 캐릭터 행진, 다양한 거리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도 담양군수는 "올해 산타축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따뜻한 겨울 분위기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도록 준비했다"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담양에서 특별한 겨울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오는 31일까지 담양=정승균 기자

'역대 최대' 광양시, 국·도비 6천억 시대 개막

전년비 280% ↑ ...국회 등 수시 방문 노력 주효

광양시가 정부의 긴급재정 속에서 역대 최대 국·도비 6천억 시대를 열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5천749억원 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2025년 국·도비로 6천29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 세수 감소와 감액 예산안 처리 속에서 이뤄낸 성과다. 정인화 광양시장과 공무원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도비 확보에 주력했다.

특히 정 시장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기재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47억원 추가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으로는 ▲광양항 광역준설도 투기장 1천329억원 ▲세종산단 2단계 간선도로 60억원 ▲전남연수원 80억원 ▲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166억원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50억원 ▲육곡 신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88억원 등이 포함됐다.

주요 도비 사업은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8억5천만원 ▲광양힐링 수변길 조성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 12억6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원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20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인화(왼쪽) 광양시장이 지난 10월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광양시 제공>

정인화 시장은 "2025년도 정부 추경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복지·농업·관광·안전·균형발전 집중 투자

내년 예산 6천666억 확정...불요불급 사업 조정 재정건전성 확보

보성군이 2025년도 예산 6천666억원을 확정하고 5대 균형 운영 방침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보성군의 회 제3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도 예산 6천666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일반회계 5천714억원, 특별회계 952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4억원 감소(0.24%), 특별회계는 95억원(11.02%) 증가할 수 있다.

보성군은 정부의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해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며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소외 없는 복지, 농림·축산·어업 육성,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권역별 균형 발전 등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와 행정 부문에는 ▲노인 일자리 지원 110억원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 급여 지원 30억원 ▲출산 양육지원

금 및 난임부부 지원 6억원 ▲청년창업 지원 2억원 등을 편성,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농림·축산·어업 육성 분야는 ▲고품질 쌀 유통 사업 44억원 ▲보성 차 산업 고도화 프로젝트 42억원 ▲스마트팜 지원 16억원 등을 통해 농촌 경쟁력 강화와 일손 부족 해소를 도모한다.

문화·체육·관광 진흥 분야는 ▲보성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40억원 ▲보성차밭 관광자원화 사업 20억원 ▲태백산맥 테마파크 조성 18억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노후 상수관망 정비 104억원 ▲도시침수 관로 정비사업 80억원 ▲북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4억원 등이 배정됐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기초생활기점사업 29억원 ▲천변 공영주차장 조성 18억원 ▲북합커뮤니티 건립 16억원 ▲공용버스터미널 신축 10억원 등이 조성, 이를 통해 권역별 지역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며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해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언 기자

고흥 '청년 인구 유입'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

전남개발공사와 성춘리 일원 50호 아파트 조성

고흥군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며 청년층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 지원에 나선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군 관련 부서장과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고흥군에 들어설 전남형 만원주택은



고흥읍 성춘리 일원에 위치하며, 고흥군청, 등기소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병원, 약국, 어린이집, 편의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선호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150억원이 투입되며, 주택은 50호 아파트로 조성된다. 규모는 신혼부부형(84㎡)과 청년형(60㎡)으로 나뉜다. /고흥=최병환 기자

양동진 순천시의원,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주거지역 환경 개선 조례 발의...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사진)이 최근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38회 전남도 시군회의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 상은 순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 온 순천시의회가 받는 상"이라며 "어려운 시국 속에서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양홍렬 기자

19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정 봉사대상'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양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주거지역

화순, 민생안정 내수경기 침체 극복 '총력'

행정·경제·취약층지원·안전관리 등 4개 대책반 구성

화순군은 19일 "탄핵 소추 의결로 인한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고 내수경기 침체 극복 등 군민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 대책반은 강종철 부군수를 대책반장으로 ▲지방행정팀 ▲지역경제팀 ▲취약계층지원팀 ▲안전관리팀의 4개 반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각종 민원 처리 등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힘쓰고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폭설, 한파,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군민 모두가 일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 군민의 소리 '바로폰' 개통

23일부터 운영

곡성군은 19일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통창구인 군민의 소리, 바로바로 바로폰(010-6663-8582)을 23일부터 공식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로폰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이 소통 창구는 군민이 건의, 제안,

불편 사항을 문자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010-6663-8582(바로팔이)로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로 바로폰(010-6663-8582)을 23일부터 운영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 시스템이 즉각적인 확인과 진행 상황 안내를 통해 민생과 안전을 세심히 챙기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곡성=김영필 기자